

중단된 한일 회담 재추진 동력-김·오히라 메모



1962년 10월 오히라 외상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첫 회담을 갖고 있다.

대일 협상은 누군가 죽을 각오로 나서 담판 지어야 할 역사적 난제

1961년 가을, 고민이 깊어갔다.

혁명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나라의 빈곤을 몰아내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다. 때마침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11월 14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공식 초청했다. 나는 박 의장의 방미를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협상 타개와 연계하려 했다. 오랜 시간 속에 숙성된 생각이었다. ‘나라를 일으키려면 밑천이 있어야 한다. 밑천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대일對日 청구권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극비리에 중앙정보부 일본 라인을 통해 나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총리의 면담을 추진시켰다. 박정희 의장에게는 일이 거의 성사된 단계에서 보고 드렸지만 다

른 사람들은 일절 모르게 했다. 내가 이렇게 비밀을 유지한 까닭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신분 때문이었다. 외국 총리를 만나는 외교 행위에 비밀을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나설 성격이 못 되는 것이었다. 한·일 회담 재개 같은 민감한 문제가 사전에 새나가면 꼭 가타부타하는 사람들이 생겨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도 보안을 지켰던 이유였다. 박 최고 의장 옆에는 벌써부터 재간을 부리며 일일이 반대할 이유를 찾아내 문제를 일으키는 측근들이 생겼다.

61년 10월 24일 도쿄 왕궁 앞에 새로 지은 뉴 팔레스라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그 앞 도로가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장관壯觀이었다. 오다이바란 동네를 보니 집집마다 지붕 위에 안테나가 직립直立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부러웠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기필코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결기가 일었다. 이튿날 오전 11시 일본 국회의사당에 있는 총리실

에서 이케다 총리를 만났다. 나는 “11월 중순에 케네디 대통령 초청으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에 가시게 됩니다. 박 의장이 방미하는 길에 도쿄에 들러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우리 혁명과업 중 하나입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용건을 얘기했다. 이케다 총리는 “한·일 회담은 양국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 의장께서 도쿄에 오시면 국빈으로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내가 다시 “두 분의 만남을 위해 제가 먼저 와서 길을 깔아드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젠 총리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를 한국에 보내 박 의장의 일본 방문을 정식으로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국민정서상 박정희 의장의 방일訪日을 일본 측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이케다는 소득배증 운동으로 일본 고도성장의 기초를 닦은 정치인이었다. 역사의 진행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말씀을 들어보니 김 부장 같은 분의 보좌를 받고 계신 박정희 의장께서도 좋은 정치를 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특사를 보내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케다 총리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간사이(關西)지방 101개 회사의 회장을 지내던 거물 경제인 스기 미치스케(杉道助)를 특사로 보내 박 의장을 초청했다. 이렇게 해서 11월 12일 도쿄에서 박정희-이케다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박 의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대일 청구권에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이겠다”고 밝혔는데, 한·일 회담이 타결해야 할 핵심 쟁점을 조리 있게 정리한 말씀이었다.

중앙정보부장인 나는 어떻게 해서 한·일 외교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는가.

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외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맺은 평화협정



스기 미치스케(杉道助) 1884-1964
오사카상공회의소장, 마이니치방송 사장 등을 지냈고, 한일회담 수석 대표를 맡았다.

이다. 식민지였던 한국은 일본과 정식으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했다. 대일강화조약은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는 양국 간 별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51년부터 61년 5월까지 1~5차 회담이 진행됐다.

5·16 후에는 61년 10월 20일 6차 회담이 시작돼 64년 4월 까지 이어졌다.

국교정상화 협상의 주테마는 결국 일본한테 돈을 내라는 것이었다.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인에게 진 빚이나 가한 고통에 대한 대가를 한국이 받아오는 문제다. 일본은 더 이상 진전시키면 자기네가 불리하다는 생각이었고 한국 측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면 매국노 소리를 듣기 십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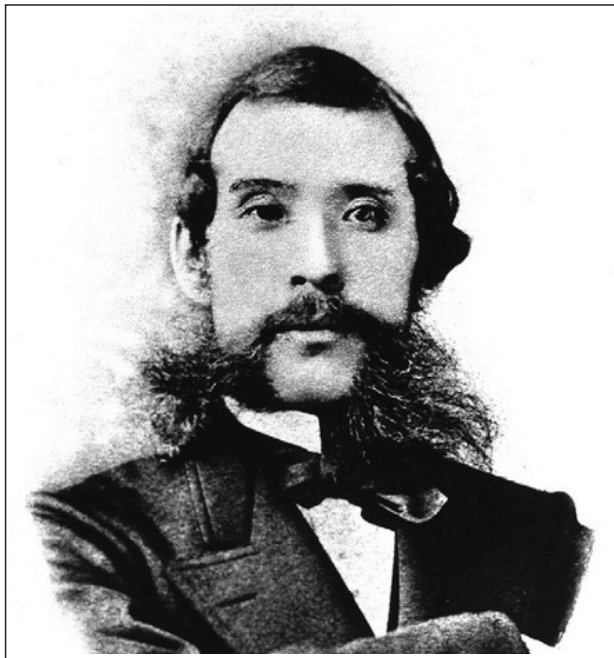
국교정상화 협상의 주테마는

일본에 당한 고통에 대가로 돈을 내라

그래서 일본 문제만 나오면 전부 뒷짐만 지고 주저앉아 있는 형편이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와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경멸감이 많이 남아 있을 때였다.

그런 정황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하자. 혁명에 목숨까지 바친 놈인데 무슨 비난을 받든 뭐가 두려운가. 욕을 할 테면 해라.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인다. 내가 길을 뚫겠다. 용기도, 배짱도, 발상도 새로 내겠다.’ 이런 결심을 박정희 의장에게 다 말씀드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다리를 놓기 위해 도쿄로 날아간 것이다. 이케다 총리와는 1년 뒤인 62년 10월에 또 만났다. 한·일 협상은 대일 청구권 문제로 실무 협상이 꽉 막혀 있었다.

결국 정치협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1일 오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년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역. 근대 일본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다.

다와라(小田原·가나가와현 남서부에 있는 도시)에서 열린 일본 MRA(도덕재무장운동)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오다와라의 전주電柱와 담벼락 등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조총련朝總聯이 쓴 ‘대국노, 제2의 이완용 김중필은 돌아가라’ 같은 전단이 가득 붙어 있었다. 이케다 총리와 나는 각각 양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케다 총리와 차를 한잔하면서 정색을 하고 ‘일본의 한국 분단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이지유신의 지사같은 김중필

이런 자가 한국에 있어 혁명을 했겠지

“포츠담 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육군이 ‘우리 다 죽자’ ‘죽창 갖고 싸우자’ ‘1억 옥쇄玉碎’ 같은 쓸데없는 소리들로 일본말로 마케오시미(まけおしみ·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쓰는 일)하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때 앞날을 내다보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연합국의 요구를 즉각 수용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도(8월 6일·나가사키 원폭은 8월 9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8월 8일)도 급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련은 만주, 북한에 진출해 한반도를 양단兩斷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폭 투하는 일본이 자초自招한 것이다.”

나는 거침없이 얘기했고 이케다는 쓴웃음을 지으며 듣고만 있었다. 내 얘기가 그의 머리에 깊이 박힌 것 같았다. ‘이런 자가 한국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혁명을 했겠지’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강조했던 건 선견지명을 지닌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중요성이었다. 역사라는 게 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피해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였다. “당신네 나라에서 그때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그동안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돈 좀 많이 내라”고 호소했다.

이케다 총리는 한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대단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몇이나”고 물었다. 내가 “서른여섯”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지사志士를 보는 것 같다. 감복했다”라고 말했다.

이케다 총리는 당시 예수셋, 나보다 27살이 많았다. 나는 지사라는 말에 흥미를 느껴 “지사 중에 누구를 비유하느냐”고 되물었더니 “오쿠보 도시미치”라고 했다.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메이지 유신 때 사쓰마번(薩摩藩·지금의 가고시마현) 출신 전략가다. 도쿠가와 막부체제 타도에 나설 때 그의 나이가 서른여섯이었다. 일본 역사에선 ‘유신3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출근하는 인력거에서 정적이 보낸 자객들한테 암살당했다. 오쿠보의 뒤를 이어 유신을 마무리한 사람이 유신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朴文)다.

내가 청구권 협상을 위해 일본의 정계 실력자 대여섯 명을 집중적으로 만났는데 이 중에서 제일 역할을 많이 한 건 이케다 총리였다. ‘김-오히라 메모’의 당사자인 오히라 외상도 중요했지만 그는 역시 이케다 총리의 영향권 안에서 나와 협상을 했던 것이다.

미국 방문길에 들른 일본에서 나는 이케다 총리,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 등을 만나 정지작업을 했다. 본격 협상은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벌어졌다. 상대방은 오히라 외상. 나보다 열여섯 살 연상이다. 일본 언론들은 그의 별명을 둔우(鈍牛·둔한 소)라고 했다. 굼떠보이지만 확실하며 힘이 세다는 뜻이었다. 실제 오히라는 그랬다. 늘 뜬눈을 들었다. 무슨 말을 꺼내면 “음, 음, 아, 아…” 거리면서 즉각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비상한 사람이었다. 천천히 꺼내는 말을 받아 적으면 그대로 훌륭한 문장이 됐다.

청구권 금액 규모 줄다리기

3천만달러에서 6억달러+알파로 올려

62년 11월 12일 저녁, 그의 사무실에서 나는 오히라와 마주 앉았다.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귀국이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에게 지불할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히라는 둔우라는 별명의 소유자답게 멍뚱뚱하더니 “3000만 달러”라고 자르듯 말했다. “그러면 3000만 달러는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고 밀어붙이자 오히라는 “외무대신인 내가 생각한 내용이다”고 맞받았다. 내가 “총리와도 상의한 이야기냐”고 다시 묻자 “아, 총리하고는 얘기했다. 그런데 총리는 3000만 달러도 많다고 하더라”고 농쳤다.

이런 식의 대화가 평행선처럼 이어졌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갔다 했다. 창 밖은 벌써 캄캄해졌다. “오히라 외상, 벌써 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조차 내줄 생각이 없는 거요. 이 나라는 이렇게 인색한가요”라며 압박했다. 그러자 오히라는 ‘참, 그렇군…’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무실 옆으로 난 문을 열어 커피를 가져오게 했다. 잠깐 열린 문 밖을 보니 기자들이 30명쯤 가득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다. “금액의 다과多寡가 결국 문제다.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당신의 본심을 이야기

해 보시라”고 했다. 오히라는 끄끙거리더니 “50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이래서는 아무런 접점이 나올 수가 없다. 나는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수탈한 것이 적지 않다. 우리는 전쟁까지 겪었는데, 그 원인 또한 당신들의 잘못 때문 아니냐. 5000만 달러라니, 그 정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싶더니 “나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고 뒤로 뺐다. 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 전국시대(1491~1565년)의 고사古事を 꺼내 들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당신네 *전국시대에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세 사람의 성격을 잘 안다. 이들에 의해 전국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300년 동안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이어지지 않았느냐.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울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울릴 것인가?

일본 고사를 인용, 둔우鈍牛를 설복

내 입에서 일본 사람들이 잘 아는 고사가 나오니까 오히라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아느냐’는 표정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빨려 들어왔다. “오다 노부나가는 ‘호토토기스(ほととぎす·杜鵑·두견새),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라’고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려 보자’고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 당신과 지금 내가 마주 앉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울지 않는다고 새를 죽여야 하겠느냐, 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든 새를 울게 만드는 도요토미 방식을 택해야 하는 입장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5000만 달러라고만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오히라의 작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주고 받는 말을 메모하던 그는 종이하고 연필을 딱 내려 놓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러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다 들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나서부터 일본말을 배웠다. 일본에서 발간한 책을 읽어 당신네 나라 역사를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꿈~” 하면서 생각에 잠기더니 “음~ 사실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안이 있다. 무상 2억 달러, 유상협력기금 형식의 3억 달러, 그래서 전부 5억 달러다”고 털어놨다. 오히라가 처음 꺼내 보인 속내였다.

세 시간 동안 막힌 얘기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오히라의 ‘속내’가 드러낸 금액은 5억 달러. 어느 정도 타결선에 가까워진 셈이었다. 나는 “무상을 3억 달러로 하고, 유상을 2억 달러로 하자. 민간 베이스에서 1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오히라는 펄쩍 뛰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5억 달러’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 보인 뒤라 대세를 돌이키기는 힘들었다.

‘하염없이 기다릴거냐, 새를 죽일거냐?’

‘두견새 얘기를 듣고, 내가 졌어’

결국 내가 제안한 ‘3억(무상)+2억(유상)+1억 플러스 알파(민간)’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4억 달러였다. 패전국으로 전후 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재정이 어려울 때였다. 지불금의 명목을 청구권으로

하느냐 경제협력 자금으로 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을 틀림없이 서로 박정희 의장과 이케다 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히라 외상의 전용 메모지에 합의 내용을 각각 쓰고 서로 대조해 보았다. 마지막 쟁점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갑론을박 끝에 타결했지만 자금 규모의 합의에 비하면 부수적인 일이었다. 그 내용을 적은 게 바로 ‘김종필-오히라 메모’였다. 메모의 내용은 ‘①무상 3억 달러 ②유상(대외협력기금) 2억 달러 ③수출입은행에서 1억 달러+α 를 제공한다’였다.

오히라는 메모를 작성한 뒤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의회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 당신 입장에선 다익선多多益善이겠지만 나는 이거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런데 당신의 ‘두견새 울리기’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고쳤어. 내가 졌어”라고 해 함께 크게 웃었다. 나는 “나도 돌아가면 우리 국민들한테 매국노나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그러나 나는 혁명 때 한 번 죽은 몸이라는 심정으로 이 일에 부딪치고 있소”라고 말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청구권 자금을 나라 세우는 밑천으로 삼겠다는 혁명정부의 구상이 성공해 보람을 느낀다.

〈중앙일보 2015년 4월29일자 ‘소이부담’〉



천하통일의 꿈을 가진 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년



천하통일의 꿈을 이룬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년



최후의 승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년